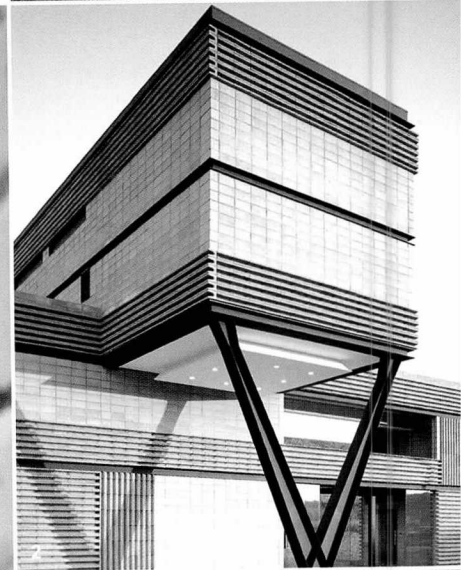


건축가 민규암 땀과 노력의 냄새

건축가 민규암은 나긋나긋하게 말하지 않는다. 머뭇거림 없이 큰 목청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내뱉는다. 꽤남아 같은 호쾌한 말투와 몸짓을 가졌으면서도, 실상 그의 관심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면만 들여다보는 대신 직접 손으로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던 과거의 목수들은 여전히 그를 흥분시킨다. 에디터 | 이기원 · 사진 | 최지영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란 촌스러운 것, 그저 버리지 못해 놔두어야 할 그 무엇 정도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1966년생, 건축가로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명성을 얻은 민규암은 전통에 대한 존중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 “고건축 너무 좋아하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옛날 건물을 보면 다 뛰어나요. 그 시대의 목수들 실력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 문화유산은 다 뛰어나다고 보면 돼요. 창덕궁, 종묘, 수원화성, 석굴암, 팔

서 만들어야 해요. 과거와 현대 목수들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과거의 장인적인 기술이 지금은 일종의 아트 크래프트가 됐어요. 공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착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예 차원에서 집 짓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인터뷰의 시작부터 끝까지 민규암은 ‘진심’이라는 짧은 단어만을 강조했다. 이 건축가는 진심 없이는 결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런 민규암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가우디 같은 세기의 건축가도 아니고,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도



1 건축가 민규암은 에둘러 말하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단호하다. 2 민규암은 첫 작품인 ‘한호재’로 그해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3 ‘UV하우스’는 U자형의 블록과 V자형의 철골에서 차용한 이름이다. 4·5 2001년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한 ‘SS 하우스’. 6 경기도 양평에 있는 ‘생각속의집’은 이미방송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7 하늘로 향하는 창이 나오는 ‘침성재’.

만대장경 판전, 이 다섯 가지는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예요.”

민규암은 가짜를 못 견디는 종류의 사람이다. 알팍한 길땀과 어설픈 사상, 눈속임 같은 것들. 그러니 건축물 하나 짓는 일에 현학적인 이론들을 갖다 붙이는 일에 이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다. 그를 감동시키는 건축물은 찌든한 땀과 노력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들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체화된 감동을 주는 건축가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과거에 비하면 드물죠. 왜냐하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조금 더 엄격하게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데 요즘 교육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든요. 솔직히 미켈란젤로도 자기가 직접 돌을 깎으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현대 건축가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 펜대만 돌리잖아요. 경쟁이 안 되죠, 경쟁이. 뼈와 살이 돼서 나오는 작품과 만날 보기만 해서 나오는 건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좋은 건물을 보기 힘들어진 건 그래서죠.”

민규암의 포트폴리오에는 ‘동양적’ ‘한국적’ 같은 꼬리표들이 자주 붙어다닌다. 사실 그의 건축물에서 동양적인 선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는다. “설계하면서 전통의 느낌을 살리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한옥 짓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단지 옛날 사람들처럼 지으면 돼요. 시시하게 만날 땀대만 돌릴 생각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아닌 창덕궁이다. 큰소리 한 번 내는 법 없이 조용히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창덕궁 말이다. “없는 듯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좋은 건축물이란 자기가 이 건물이 정말 좋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한옥들이 다 그래요. 옛날 왕이 창덕궁 살 때 ‘야,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창덕궁을 좋아하는 이 남자는 속사포처럼 말을 잇는다. “그래도 현대 건축가 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라고,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논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건 진짜야’ 그런 느낌이 왔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20세기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모여서 1999년에 한번 투표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를 스카르파(Scarpa)라고 딱 정해 버렸죠. 르 코르뷔지에니 뭐니 다 탈락이에요. 스카르파도 거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 없을 때는 목공도 하고, 석공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 독학으로 다 배운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옛날에 무슨 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잘했겠어요? 결국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라고요.”

이 건축가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은 온전히 건축 설계를 위해 바쳤다. 한 건축가에게 결작은 최소 70세는 넘어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민규암은 오늘도 자신의 진심을 담아 새로운 건축물을 구상 중이다. ☺